

96년 환경설비 투자 1조6000억원

경제성장 둔화로 증가율 1.4% 그쳐 ... 95년 97.4%나 급증

96년 국내 산업계의 환경투자가 경제성장세둔화 전망에 따라 95년보다 1.4% 늘어난 1조6000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조사됐다.

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·비상장 등록법인 1120개사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, 95년 국내 산업계의 환경투자 규모는 94년보다 97.4% 증가한 1조5795억원(설비투자 대비 6.6%)이었으나 경제성장을 둔화가 예상되는 96년에는 1조6023억원(설비투자 대비 6.2%)으로 1.4%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.

공해방지시설 투자동향							
(단위 : 100만원, %)							
구 분	1994		1995		1996		증감률
	투자액	비 중	투자액	비 중	투자액	비 중	
대기오염방지시설	294,137	48.7	424,648	52.0	217,621	25.6	▽48.7
수질오염방지시설	170,361	28.2	200,347	24.5	357,723	42.2	78.6
폐기물처리시설	97,403	16.1	151,260	18.5	220,003	26.0	45.6
소음·진동방지시설	17,550	2.9	18,962	2.3	21,672	2.6	14.3
기 타	24,621	4.1	21,702	2.7	30,723	3.6	41.6
계	604,072	100.0	816,919	100.0	847,742	100.0	3.8

산업계의 부문별 환경투자 계획을 보면,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과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공해방지시설 투자가 95년보다 3.8% 늘어난 8477억원, 환경오염물질의 사전발생 예방을 위한 공정개선과 제품폐기후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 및 기술개발이 1.1% 줄어든 7546억원을 차지했다.

업종별 환경투자 동향은 대규모 장치산업인 코크스·석유정제품 및

핵연료제조업부문이 94년 2570억원, 95년 8370억원에 이어 96년 6372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조사돼 투자액이 매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환경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675억원(224.4% 증가), 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707억원(184.8% 증가),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629억원(123.1% 증가),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798억원(68.3% 증가),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1521억원(58.0% 증가) 등으로 조사됐다.

<화학저널 1996/3/18>